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추진...유통가 '축각'

광주시 "자치구 조례사항, 아직 요구없다...소상공인 입장 중요하지 않겠나"

대구시가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광주지역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이다.

21일 유통업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날 대구 8개 구·군 및 대·중·소 유통업체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의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중소 유통업체는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데 협력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형 유통사들은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상생 방안도 제시됐다. 대형마트 전단 광고에 중소 유통업체 홍보, 판매기업·위생관리 등 소상공인 교

육, 전통시장·슈퍼마켓 이용고객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대구시의 결정에 광주지역 유통가도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주말 의무휴업을 적용받는 유통업체는 20여개 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에서 구체적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대구처럼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경우 전통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다보니 광주시도 조심스런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데 아직까지 요구한 지자체는 없다"면서 "휴일 의무 휴일 부분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에서 구체적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공공자원 개방 공유서비스 광주시, 최우수...8천만원 확보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8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이 ▲개방 자원 확대와 홍보실적 ▲주민서비스 개선 노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등을 심사했다.

광주시는 공공자원 등록 정비와 서비스 홍보, 유휴공간 내 물품공유방 개실, 찾아가는 공유학교 운영, 공유장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TEO 스튜디오 대표 초청 '청년 특강' 개최
광주시는 2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호 TEO 스튜디오 대표를 초청해 '청년, 내 일'을 혁신하라는 주제로 청년 특강을 한 후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광주시 제공

가뭄 대응 '명품 지하수 50선' 전남도 지정...책자로 만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가뭄 장기화에 대응해 미네랄과 기능성 성분을 함유해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명품 지하수 50곳을 선정, '전라남도 지정 명품지하수 50선' 책자를 발간해 일반에 공개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명품지하수 선정은 전남지역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지표(J-INDEX)를 적용, 먹는물 안전성 평가를 중점으로 미네랄과 기능성 성분 함유량 등의 점수를 반영했다.

전남 탄소중립 실천 성과...상반기 온실가스 9980톤 감축

3만9583가구 4억8000만원 상당 인센티브 혜택

전남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을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2022년 상반기에 998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가 151만 그루가 연간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과 같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표준 탄소 흡수량 가이드'를 통해 30년생 소나무 한그루가 연간 6.6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입자가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최근 2년 대비 온실가스를 5% 이상 감축한 경우 연간 최대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가입자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남형 탄소포인트제'를 별도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3% 이상 5% 미만 감축한 가구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온실가스를

5% 이상 감축한 3만3781가구에 4억 56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여기에 전남형 탄소포인트제 대상인 5802가구에는 24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추가해 총 3만9583가구에 4억80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범우 전남도 기후생태과장은 21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도민들이 탄소포인트제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탄소중립 생활실현을 위해 더 많은 도민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두근두근 낭만여행 힐링영광 ”

영광군 YEONGGWANG-GUN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신청하기에 앞서 지역주민분들께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을 알려드리고 주민분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지역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23일

구분	발전사업 허가 신청지	발전사업의 명칭	발전소 위치	면적	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1	㈜나리태양광	나리태양광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63-7	3,134평	2,998.92kW	2023.12.	2048.12.까지
2	㈜나팔에너지	나팔에너지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63-7	2,920평	2,998.92kW		
3	녹색신안태양광(주)	녹색신안태양광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60, 60-2, 60-9	3,879평	2,998.92kW		
4	㈜수향솔라	수향솔라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60, 60-10, 60-12	4,488평	2,998.92kW		
5	㈜상정솔라	상정솔라4호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842-16	4,237평	2,998.92kW		
6	㈜상정솔라	상정솔라5호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59, 60, 60-12, 60-13	4,223평	2,998.92kW		

※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의견제출 기간: 2022.12.23. ~ 2022.12.30.
- 의견제출 방법: yjlim@topsun.kr

섬 겨울꽃 축제

1004섬, 에기동백에 물들다

22. 12. 9. ~ 23. 1. 31.

신안군 압해읍 분재정원

"가뭄 극복 비상 대체수원 확보 속도"를

강기정 시장 상수도사업본부 방문...가뭄대책 추진사항 점검

강기정 시장은 21일 "가뭄 극복을 위한 비상 대체수원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중장기 대책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도 역량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상수도사업본부(덕남정수사업소)를 찾아 가뭄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강 시장은 "최근 많은 눈이 내렸지만 상수원 저수율 상승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생활 속 20% 물 절약 노력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만큼 힘을 모아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초부터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2024년 시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노후 상수도관 리모델링과 누수로 버려지는 물의 양이 심각한 실정이다. 미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단기·중장기 대책을 설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주암댐 원수 분할공급을 통해 용연정수장과 덕남정수장의 생산량을 단계별로 조절하는 한편 급·배수관 급수구역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물 생산·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영산강 하천유지용수 활용사업 중 비상도수관로사업은 공사를 발주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일상 기자

친환경직불금 127억 확정...1만5천 농가 지급

전남도, 친환경 농업직불금 전국 총액의 57% 차지

전남도는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액을 175억원으로 확정하고 연말까지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준다. 지속가능한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해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격을 받은 1만 5000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2만ha로 국비 127억원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국 총액 222억 원의 57%에 해당하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83만원이다. /박종배 기자

전남, 연말연시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

1000명 이상 운집 예상 6곳 집중 선제적 안전점검

전남도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오는 24일 목포시 해상W쇼, 담양산타축제 등을 비롯해 오는 31일 밤부터 열리는 여수시 항일암 일출제와 목포시 새해맞이 타종식 행사장 등 1000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장 6곳이다.

행정안전부·경찰·소방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행사장 참여 인원 동선 관리, 안전선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을 포함한 행사장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행사 개최 중과 종료 후 참여인원 분산체계 등 상황관리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또 도·시·군 통합관제센터에 구축된 24시간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실시간 집중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중중 밀집 인계점인 1m²당 6명 밀집상황 발생 시 시·군, 경찰서, 소방서에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함께 전담 부서인 시·군 안전총괄부서가 재난문자를 발송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대응 체계도 함께 가동한다.

연말연시 전남지역 해돋이·해맞이는 총 6개 시·군 17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참여 예상 인원 1000명 이하 행사장은 해당 시·군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여행피해신고공고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여행사명** : (유)연세투어 (대표 : 이현수)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우석로98 (1층)
- 채권범위** :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 단, 보험가입기간 및 피해변상가능여부를 접수처에 확인할 것
- 접수처** : 전라남도관광협회 (전화 : 061-285-0832)
소재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11
- 신고기간** : 2022.12.22.(금)~2023.02.20.(월) 17시까지(61일간)
- 제출서류**
 - ① 피해사실확인서(본회 소정양식)
 - ② 여행계약서
 - ③ 여행일정표
 - ④ 입금영수증 원본(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의 경우-은행대조필 확인서류)
 - ⑤ 출입국사실증명원
 - ⑥ 기타 계약관련 서류 일체(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가 없는 경우)
 - ⑦ 신분증 사본
 - ⑧ 본인명의 통장 사본
 - ⑨ 개인정보제공 활동 동의서
 - ⑩ 위임장(여행자 전원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 타 여행사를 통해 진행 중 또는 다녀온 경우 추가 제출서류
① 여행계약서 사본(없는 경우 "여행사실확인서" 진행하고 있는 여행사의 명판과 회사도장날인) ② 여행일정표 ③ 입금영수증 원본
※ 청구시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피해보상 등)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전라남도관광협회 회장 임광호